

## 민주연구원 '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' 정책브리핑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7월 22일(수), 『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』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  - 이재영 원장은 “최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‘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안’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,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가속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.”라고 하며, “이번 브리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편안이 ‘을’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.”라고 밝혔다.
- 브리핑은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였다.
  - 첫째, ‘단체교섭권’ 등과 같이 용어를 둘러싼 논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‘소상공인 협의권’, ‘소상공인 협의요청권’ 등과 같이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.
  - 둘째, 협상의 과정과 결과 도출에 있어서도 공정위의 중재 및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.
  - 셋째, 소상공인 관련 개별 입법 개정을 통한 협의요청 권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.
  - 넷째, 영세 소상공인의 협상 대리인으로 소상공인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같은 협회 및 단체 등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.
- 민주연구원 정상희 수석연구위원은 “현장에 가보면 다양한 ‘을’을 만나볼 수 있다며,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이번 제도개편안을 시작으로 ‘갑’과 ‘을’이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.”고 덧붙였다. /끝/